

서양복식에 표현된 여성인체의 해석에 관한 고찰

가톨릭대학교 의류학과
전임강사 김수경

目 次	
I. 서론	변화에 영향을 준 사회문화적 배경
II. 복식을 통해 나타나는 인체의 물리적 부위별 성의 구분	V. 현대복식에 표현된 여성인체의 해석
III. 복식에서의 성적 이원화	VI. 요약 및 결론
IV. 현대복식에서 보여지는 여성인체 외형의	참고문헌
	ABSTRACT

I. 서론

복식의 기원이 유용성에만 있지 않다는 것을 증거하는 원시인들의 장식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인간은 복식을 통해 자연이 부여한 자신의 인체를 거부하고 새로운 모습을 만들고자 원했다. 즉 복식으로 표현되는 인체란 시대가 요구하는 이상적 이미지에 따라 인체자체가 구조적으로 갖고 있는 물리적 성질의 인체에 머무르지 않고 복식을 통해서 재구성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상적 인체이미지는 역사적으로 사고체계의 변화에 따라 변화한다.¹⁾ (그림 1) 따라서 복식이 착용자의 내면의 가치관으로부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한 시대의 사회구조의 반영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복식으로 표현되는 인체미는 사회의 고정관념 및 관념화된 이미지를 반영한다.

한편 인체는 남성과 여성으로 나뉘어진다. 여기



(그림 1) Grazietta Butazzi, La mode, art, histoire, société, Hachette et cie. : Paris, 1983, p.67

* 이 논문은 1997년도 가톨릭대학교 교비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1) J. V. Eyck의 arnolfini의 결혼초상화의 경우처럼. 예를 들면 15세기 유럽여성은 인구증가의 필요성에 의해 임신한 모습으로 보이도록 했다.

서 성(性)은 자연적으로 얻은 성(sex)과 사회적으로 제작되어지는 성(gender)의 체계를 갖는다. 이러한 체계에 따른 인체는 생물학적인 생득(生得)된 인체와 사회적으로 제작되는 인체이다. 그런데 복식에서는 제작된 인체 이미지에 의해 “남성적” “여성적”이라고 구분되어진다. 이와 같은 구분은 일반적으로 복식이 착용자의 성을 표현하기 때문이라고 보며, 복식에서 성의 구분이 관념적으로 정립되었기 때문이라고 사려된다. 그런데 서양 복식에서 나타나는 성의 구분의 근원은 중세말로 거슬러 올라간다. 즉 세부적인 변화를 제외하고는 이집트 시대에서 중세 비잔틴 시대까지 복식을 통해 드러나는 성의 차이는 뚜렷하지 않다가 중세 말 이후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근대로 넘어 오면서 남성복이 급변하는 사회구조에 적합하게 대중화, 획일화 및 민주화 되어감에 따라 각 성의 고정 관념적인 형태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복식에서의 성의 구분은 여성 및 남성의 인체의 외형에 극단적인 분리를 가져왔다. 여성의 인체는 일반적으로 코르셋으로 인한 가는 허리, 가슴의 솟음과 엉덩이의 돌출 및 다리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변형미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의 역할을 기초로 하여 관념적인 성의 차이를 극대화한 고정 관념적 사고체계 속에서 나타난 변형미라고 보여진다.

“유행이란 한시대의 부분을 복식으로 표현하는 것”이라는 관점에 의하면,²⁾ 사회의 진화에 따른 유행의 변화는 복식의 변화 및 인체를 보는 시각의 변화를 가져오고 인체에 관한 성의 변화를 보이게 된다. 그런데 20세기에 들어와서 인체와 복식과의 관계는 두드러진 변화를 겪게 되었다. 1차 대전을 겪으면서 여성의 사회진출이 불가피해졌으며, 이에 따라 여성의 복식도 근대의 남성복에

서 보여졌던 대중화, 획일화 및 민주화의 양상을 보이게 된다. 특히 여성복이 기능미를 추구하고 유행에서는 포아레가 코르셋을 생략해 버림에 따라 여성의 인체미는 두드러진 변화를 보이게 되었다. 이어 2차 대전을 지나면서 세계는 산업사회로 본격적으로 들어섰다. 구미의 경제확장과 더불어 나타나는 기성복의 발달 및 사회구조의 변화 속에서 여성의 역할 변화는 인체구조의 외형상의 성별 차이를 보이지 않아도 되는 단계까지 이르렀다.

이제 21세기를 며칠 앞둔 오늘날의 소비사회에서 각 디자이너들이 제시하고 있는 다양한 여성 이미지는 획일화 속에서의 다양성 추구라는 유행의 본연의 성격에 맞도록 다양한 여성 인체미를 보여주고 있다.³⁾ 이때의 다양한 인체미란 더 이상 성에 근거한 다양미가 아니라 인체자체의 변형과 해체를 거친 후 재구성되는 인체미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복식을 통해 나타나는 인체에서의 성의 분리에 관하여 살펴보고, 오늘날 여성 복식을 통해 인체가 해체되고 재구성되는 모습에 관하여 고찰하고자 하며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제기하였다.

첫째, 복식으로 나타나는 자연적으로 생득된 인체와 제작되어진 인체란 무엇인가.

둘째, 복식으로 표현되는 성의 이분화 과정은 어떠한가.

셋째, 오늘날 디자이너들에 의해 보여지는 여성 인체의 이미지란 어떻게 나타나며 앞으로 복식에서 제시될 여성인체 이미지는 어떤 것이 있는가.

이와 같은 연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복식으로 표현되는 인체의 해석에 대하여 고찰하며, 현대복식에 나타나는 다양한 여성인체의 변화에 그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본 연구는 방법 면에서 문헌자료와 그 외의 잡지와 같은 매스 미디어를 참고하였다. 본 연구에

2) Bruno du Roselle, La mode, Imprimerie Nationale : Paris, 1980, p.3

3) KFS '98~'99 F/W Influence 中에서 ‘다양한 변화를 위하여 주시해본다. 볼륨을 재구성하고 형태를 왜곡시킨다. 늘리고, 당기고, 부풀리고, 인체의 어느 한 부분에 포커스를 맞춘다. 인간공학(생물공학)과 정형 외과적인 탐구가 거듭되고, 신체의 관절은 해체되고 실루엣은 과장된다. 변종의 창조를 즐기기 위함이고 새로운 미의식이 조작된다.’

서 기대되는 성과는, 이와 같은 외형의 모습 이면에 나타나는 구조적인 문제를 고찰하고, 오늘날의 복식문화 속에 나타나는 미의식을 정리하며 나아가 앞으로 다가올 유행상의 흐름을 제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I. 복식을 통해 나타나는 인체의 물리적 부위별 성의구분

본 장에서는 자연상태의 여성인체와 재구성된 여성인체를 정의하기 위하여 복식을 통해 나타나는 성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한다. 인체의 형상에는 개인차를 가지지만 그 구조는 일정한 체계를 가진다. 해부학적으로 보면 인체에는 성과 관계없이 연결된 내장, 근육, 피부가 그 양의 태반을 점유하고 있으며, 이들의 위치를 구성하는 주역은 골격으로 일반적으로 약 206개의 뼈가 일정한 질서 속에 조립되어 있다.⁴⁾ 인체비례의 관점에서 보면, 인체비례란 미적 비례의 하나로 인체의 일부를 기준으로 그 밖의 인체부위가 어떤 비례로 되어 있는가를 표시하는 것이다. 인체비례는 민족, 개인, 시대차 등에 따라 비례의 비교적인 이상수치만이 있을 뿐이다.⁵⁾ 해부학적 구조상으로는 성기관과 성징이 나타나는 부위를 제외하고 성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작거나(손) 짧으며(키) 좁은(등) 비례상의 차이를 보인다. 그런데 문화는 이러한 차이를 조금씩 상징화하여 변형시켰고 이를 규범화하여 다른 인체로 재구성하였다. 이에 따라 여성과 남성을 구분하기 위한 차이가 더욱 강조 되게 되었다. 나아가 인체는 성과 관련 없는 부위도 상징화되어 성의 의미를 갖는다. 시대적 인체미에 따

라 여성인체는 자주 부분이 조각으로 분리되어 이상화된다.⁶⁾

복식은 인체의 다양한 부위에 주의를 집중시키고자 하며 이러한 부위는 시대나 문화의 사고체계에 따라 변화한다. 따라서 -D. Morris가 Body watching에서 보여준 것처럼, - 인체를 인간지도위의 지역들처럼 별개의 단위로 나누고 여성인체를 남성인체와 비교하여 복식에서 상징화된 성의 모습을 관찰하고자 한다.

1. 머리털

일반적으로 남성은 힘있는 짧은 머리와 여성은 길고 부드러운 머리로 성의 차이를 둔다. 즉 자연 상태에서는 특별한 차이가 없는 머리털이 「제작된 인체」에서는 길이에 따라 성별의 차이를 나타내게 되는데, 이는 특히 기독교 문명권의 사도 바울의 규칙이 서구사회를 지배한 이후에 생긴 것이라고 하며, 오늘날 복식이 서구화 또는 획일화되어 가면서 세계 공통적으로 나타난 모습이기도 하다. 또한 여성이 머리손질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였고, 시대에 따라서는 과장된 머리장식이 여성의 성적상징 및 매력의 수단이기도 했다.⁷⁾ 따라서 보들레르의 시구처럼 여성의 머리털은 관능성과 관련되기도 한다. 오늘날 남성이 여장을 하고자 할 때 스커트와 함께 머리의 장식을 가장 여성스러운 모습으로 간주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⁸⁾

한편 모자는 머리털처럼 어떤 개념과 견해를 표현한다고 생각 되었으며, 시대에 따라서는 남성의 경우 높은 모자로써 키를 확대시켰고 지팡이나 우산과 더불어 힘과 권위의 상징으로 사용되기도 했다.⁹⁾

4) Louise Gordon, 문범 옮김, 인체해부와 묘사법, 미진사 : 서울, 1994, p.7

5) 임범재, 인체비례론, 홍익 대 출판부 : 서울, 1980, p.9

6) Eduard Fuchs저, 이기웅 박종만 옮김, 풍속의 역사 III, 까치사 : 서울, 1995, p.4

7) Ibid., p.56

8) Anne Hollander, 채금석 옮김, 의복과 성, 경춘사 : 서울, 1996, p.66

9) Alice Lurie, 유태순 옮김, 의복의 언어, 경춘사 : 서울, 1986, p.228, p.229

2. 눈썹 및 눈

남성은 여성에 비해 짙고 술이 많은데 이러한 차이를 강조하여, 여성은 면도나 화장 등을 통해 인위적으로 초 여성의 성격을 나타내기도 한다. 눈 역시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남성의 눈이 여성보다 조금 더 크고 여성의 눈이 남성의 것보다 현자위의 비율이 높다고 한다. 그런데 여성은 화장이라는 수단으로 그 외형 미를 변화시킬 수 있게 허락되었으며, 시대에 따라서는 퇴폐적 관념으로 특정의 성적매력을 강조하기도 한다.¹⁰⁾

3. 코, 입 및 귀

코는 일반적으로 길이와 크기에서 성의 차이를 보여준다. 그런데 여기서 확대되어 우뚝한 코가 남성적이라고 보게 되었으며 나아가 상징적으로 남근과 연결되어 해석되기도 한다. 코가 남성적 성을 갖는데 비해 입술은 여성적인 성으로 상징된다. 입은 남녀 공통적으로 먹고 말하는 등 많은 일들을 하는데에 유용하지만, 특히 여성에게 있어 점막 입술에서 붉은 입술로, 나아가 붉게 칠한 화장으로 강조된다.

귀는 귓볼로 인해 본래의 기능과 거리가 먼 성적 상징성을 지니게 되는데 귀의 외형적인 형태로 인해 여성적인 것으로 보는 관점도 있다. 청동기 시대 이후 오늘날까지 특정 성에 관계없이 자발적인 신체상해로 남아있는 귀걸이는 초기의 다양했던 동기들은 사라지고 가장 인기 있는 여성의 장식 중 하나로 특정 지어졌으며 오늘날 남성들에게 이 장식이 적용될 때는 반사회적 행동으로 비취하기도 한다.¹¹⁾

4. 목

전통적으로 남성다운 인물은 황소목, 여성다운 인물은 연약한 백조 같은 목을 지녔다고 하며 성의 차이를 굵기와 길이로 강조하였다. 또한 이러한 성의 차이는 남성의 후골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한편 극도의 왜곡현상도 나타나는데 문화권에 따라서는 기린 목을 선호할 만큼 과장되기도 한다. 서양복식사에서는 가슴형태와 관련되어 여성 목의 노출은 여성의 허약한 분위기와 선정미를 강조하는 반면에 남성복에서는 이와 반대되는 경향을 보인다.¹²⁾

5. 어깨

어깨는 여성과 남성의 역할분화에 따라 중요성이 커진 팔운동의 기초가 되는 부위로써, 진화되어감에 따라 성별차이가 현저하게 나타나게 되었다. 헤르만 로체는 육체의 이미지를 표현하는 의복의 기능에 관해 말하면서, “의복은 우리들의 현실적인 몸 여기저기에 붙어 실제 이상의 강력한 느낌을 주고 보다 큰 공간을 점유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¹³⁾ 즉, 문화가 강조한 성적차이를 복식에서도 강조하였는데, 구체적으로는 어깨의 차이를 나타내는 군대의 견장, 패드 장식 등이 남성권위의 곳곳한 어깨와 동일시되어진다. 대조적으로 빅토리안 시대의 여성의 어깨는 삼패인 병이나 맥주병의 입구와 닮을수록 더 찬사를 받게 되었었고 나아가 소매의 윗부분은 부풀리고 손목부분으로 가면서 점점 줄어들어 끝부분이 붙게 되는 복식으로써 활발한 운동감을 방해받았다.¹⁴⁾ 1980년대에는 자신을 강조하고자 하는 여성

10) E. Fuchs, op.cit., p.222

11) Susan. B. Kaiser, 김진구 감수, 김순심 외 3인 옮김, 복식사회심리학, 경춘사 : 서울, 1990, p.42

12) 정홍숙, 복식문화사, 교문사 : 서울, 1989, p.231, p.134

13) Stephen Kern, 이성동 옮김, 육체의 문화사, 의암 출판 : 서울, 1996, p.35

14) A. Lurie, op. cit., p.56



(그림 2) Ibid., p.137

들이 인위적으로 어깨를 넓히기도 하였다.

6. 팔, 손

진화과정에서 남성은 근육이 발달된 팔을 갖게 되었다. 반면 여성의 것은 연약하고 가늘게 대조를 이루게 되었다. 흔히 팔의 부위가 가장 성적이 아닌 행동의 초점으로 인식되어 지기도 하나, 반면에 복식을 통해 나타나는 특이한 모습은 성과 관련지어 백조 같은 팔, 귀여운 손 등으로 여성의 특질을 강조한다. (그림 2) 이는 동남동녀(童男童女)의 추구의 단면으로 보여지며 나아가 가부장적 사고방식과 연관되기도 한다.

7. 가슴

다소 넓고 다소 발달된 근육의 형성이 남성의 가슴에 선호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¹⁵⁾ 여성의 가슴은 유방과 더불어 시각적인 성적 상징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모체의 기능과 성적 기능을 갖고 있는 유방은 인간이 두발로 서기 시작하면서 일반적으로 다른 영장류가 지닌 영덩이의 성적 신호를 대신한 모방적 궁둥이의 진화로서 원초적인 성적 신호를 전달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서양복식을 통해 데꿀메된 옷으로써 강조되는 들출된 유방은 코르셋으로 인한 허리의 재구성과 함께 지속적으로 나타나며, 여성인체의 찬미에 있어서 가장 비중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남성보다는 여성의 인체에 미의 초점을 맞춘 사회구조 속에서, 인체란 여성에게 그 존재의 가치를 정의하는 것으로 여성역할의 정의와 일치된다.¹⁶⁾ 즉 여성의 전체적인 특질을 결정하는 것은 가슴뿐이라고 한 Leo Berg의 말처럼, 모체의 기능을 나타내는 순결성과 성적기능을 나타내는 욕망의 이율배반적 정의를 가지는 가슴은 여성의 이율배반적 역할을 나타내고 있다.¹⁷⁾

8. 등과 허리 및 배

남성의 등은 비례상 허리 위쪽이 넓은 반면 여성은 허리 아래쪽이 더 넓다. 또한 남성은 남성에게 발달한 외복사근에 의한 대조 효과로, 명확한 허리곡선을 가진 여성과 성별차이가 두드러진다. 한편 출산의 경험은 허리 둘레의 변화를 가져오므로 인해 가녀린 허리는 처녀성과 젊음을 상징해왔다. 따라서 가부장제 사회에서 가는 허리란 부와 권력의 계승자를 갖게 하는데 있어서 안전함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¹⁸⁾

서양복식을 통해 보면 코르셋의 출현으로 인한 허리의 축소는 대조적으로 영덩이의 강조로 발전되어졌으며 여성 인체의 미적 표준의 역할을 해왔다. 많은 폐해가 드러난 코르셋도 당시 인들에

15) S. B. Kasier, op. cit., p.69

16) E. Fuchs, op. cit., pp.13~30

17) S. Kern, op. cit., p.133

18) Desmond Morris, 이규범 옮김, 바다 위칭, 범양사 : 서울, 1997, p.217

게는 의학적 역할을 담당했다고 믿어졌으며, 관능미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도구로 인식되기보다는 사회구조가 규범화된 도덕 속에서 여성의 정숙성과 관련되어 인식되어졌다.¹⁹⁾ 결국 유행 면에서 코르셋은 전쟁으로 인한 금속의 부족과 여성의 사회진출로 인해 포와레를 기점으로 결정적으로 제거되었지만, 오늘까지도 가는 허리 신화의 영향력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9. 엉덩이

여성의 엉덩이는 남성의 것과는 달리 피하지방의 발달의 차이나 허리선과의 대조 효과로 성적 특징을 두드러지게 한다. 즉 엉덩이는 진화과정 중 두발로 서는 자세를 취함에 따라 독특한 형태를 취하게 되었으며, 골반의 각도나 지방 발달에 따른 해부학적 차이로 인해 성적신호를 보여주게 되었는데, 복식에서는 여성의 초대형 엉덩이를 강조하는 것으로 발전한다. 과거 빌렌도르프 비너스의 원시미인의 형상처럼 엉덩이는 치마의 크기확

대나 버슬 등의 사용으로 그 원초적인 미의 흔적을 따르는데, 이는 엉덩이가 배와 함께 임신과 직결되는 부위로써 생식기능과 성의 기능을 갖고 있는데 기인한다고 생각된다.²⁰⁾

10. 다리, 발

1차 대전이 끝날 때까지 다리는 여성복에서 거의 노출되지 않고 치마 속에 은폐되어 왔다. 따라서 다리라는 단어는 오랜 세월에 걸쳐 금기의 대상이었으며, 이는 다리를 성적 부위와 직접적으로 연관시킨 데서 기인한다.²¹⁾ 한편 다리가 금기의 대상이었던 만큼 약간의 노출도 성적 매력을 나타내는데 효과적이었으며 나아가 다리와 관련된 구두, 스타킹, 가터 벨트 등이 관능미와 페티시즘의 대상이었다.

근대에서 현대로 넘어오면서 여성이 바지를 입으려고 했을 때 많은 마찰이 일어났다. 이러한 마찰은 은폐되어야 할 곳이 드러나는 것에 대한 사회규범의 저항으로 보여진다. 여성들은 비활동적

<표 1> 인체부위별 나타는 성의 강조

항목 인체부위	여성미의 강조	남성미의 강조
머리털	길고 부드러운 머리털, 장식의 사용	짧고 힘있는 머리털, 높은 모자로 권위의 강조
눈썹, 눈	인위적인 가공의 눈썹, 화장	짙은 눈썹
코, 입, 귀	붉은 입술, 귀걸이 등 장식과 화장의 사용	코 : 남근과 동일시
목	백조목, 노출 (베꿀따쥬)로서 강조	황소목, 후골, 은폐
어깨	좁은 어깨, 노출	볼륨 있는 재료로 각진 어깨와 확대된 의형미 강조. 권위의 상징 : 건장
팔, 손	연약한 팔, 귀여운 손	단단하고 근육 있는 팔
가슴	성적 기능, 모성의 기능	다소 넓고 근육이 발달한 가슴
등, 허리, 배	X자형 실루엣, 가는 허리, 축소지향	Y자형 실루엣. 탄탄한 배
엉덩이	확대지향	Y자형 실루엣
다리, 발	금기의 대상, 은폐, 페티시즘의 대상	드러냄, 다리의 분리. 강한 다리

19) 최현숙, “패션과 여성의 신체에 관한 페미니즘 시각에서의 재조명(1)”, 대한가정학회지, 제34권 제1호, 1996, p.315

20) D. Morris, op. cit., p.231

21) Ibid., p.255

인 치마에서 미니스커트와 바지의 착용으로 활동을 찾았고, 다리는 더 이상 금기나 정숙의 대상이 아니게 되었다. 도리어 하이힐 등의 착용과 함께 직설적인 성적 매력을 강조하는데 이용되었다.

“19세기 여자에게 다리가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는 말이 있는 것으로 보아,²²⁾ 여자의 다리는 인체의 비례 중 거의 반을 차지하면서도 복식에서는 은폐된 형상이었다. 오늘날 여성들이 선택한 바지는 여성도 남성과 같이 일상적인 인체를 가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고 일상적으로 작용하는 근육, 뼈, 내장 및 두뇌를 가졌음을 보여주는 것이다.²³⁾

시각적인 면에서 여성인체의 진정한 구조는 항상 유행에 의해 분명해지기보다는 더 모호해졌다. 과거에는 여성인체 중 은닉되어야 할 대표적인 부위가 여성의 엉덩이와 다리였는데, 한편으로는 강조되어야 하는 이중성을 지닌 부위였다. 이러한 이중성을 가장 잘 드러낸 것이 부풀린 스커트였다. 위와 같이 인체를 부위별로 고찰하는 것은 여성에게 있어서 인체란 부분이 모여서 전체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었고 오히려 여러 조각의 부분으로 만들어진 모자이크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²⁴⁾ 그리고 옷은 인체의 연장이며 인체 이미지의 표현이므로 복식은 이러한 인체에 대한 생각을 반영하는 좋은 매개체라고 생각된다. 서양복식을 통해 표현된 여성인체는 객관적이고 물리적인 실체로서의 인체가 아니라 사회화된 성의 개념이 관념화된 인체였다. 이러한 여성성이 강조된 인체는, 치마와 바지라는 실루엣상의 분리로 인하여 그 감싸고 있는 인체의 동질성을 상상할 수 없게 만드는 극히 다른 형태의 형식화된 인체이다. 그러나 인

간의 행동양식은 여성성과 남성성이라는 이원적 분류만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하다. 특히 현대의 복식에서 표현되는 성의 이미지도 각 성의 양극적 이미지를 탈피하고 있다. 다음 장에서는 복식에서 이원화되는 성의 고정관념의 근원을 찾아보고 현대에 이르면서 그 고정관념이 파괴되어 가는 배경에 대하여 정리해 보고자 한다.

Ⅲ. 복식에서의 성적 이원화

각 시대는 민족, 문화별로 인체에 대한 이미지가 있었으며 이는 복식을 통하여 잘 나타나있다. 일반적으로 고대 이집트 시대부터 비잔틴시대까지 복식을 통해 드러나는 성적 차이는 뚜렷하지 않았다. 이집트 시대에는 인체의 성의 구분보다는 기하학적인 미의식에 더욱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평면형의 중성적 이미지의 옷이 제작되었다.²⁵⁾ 그리스 로마시대에는 이데아의 반영으로서 완벽한 조화를 인체에 재현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복식에서 성의 구분보다 조화의 법칙을 중요시하였으며 이를 기준으로 올바른 비례를 확립하고자 하였다.²⁶⁾ 중세의 비잔틴 시대는 기독교의 금욕주의에 의하여 몸을 완전히 감싸고 드러내지 않는 실루엣과 색조, 문양 등으로 종교적 상징의 의미만이 두드러졌다. 따라서 복식에서는 성의 구분이 보여지지 않았다.(그림 3)

중세말기 고딕시대로 넘어가면서 오늘날의 서양복식의 기준이 된 고정관념이 짙었다. 즉 오랜 종교전쟁을 계기로 기능성에 근거한 남성복의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으며 이에 발맞춘 재단과 봉제 기술의 발달로 의복의 입체화가 이루어졌다. 이에 가세하여 종교전쟁 이후 신과 인간에 대한 인식의

22) S. Kern, op. cit., p.14

23) A. Hollander, op. cit., p.86

24) E. Fuchs, op. cit., p.4

25) 정홍숙, op. cit., p.30

26) 이미선·김민자, “복식에서 성의 가치적 불일치에 관한 사적 연구”, 의류학회지, 제19권 제2호, 1995, p.344



(그림 3) Ludmila Kybalova 외 2인, Encyclopédie illustrée du costume et de la mode, Gründ : Paris, p.87



(그림 4) G. Buttazzi, op. cit., p.220

변화는 인체의 특질에 기반을 둔 복식을 개발하기에 이르렀다. 남성복은 다리가 드러나고 남성성이 강조되었다. 반면에 여성복식에서는 봉건제도에 의한 여성의 지위하락으로 인하여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한 여성성이 강조되었으며, 몸체가 가늘고 길게 보이면서도 다리의 모습이 은폐된 인체미로 표현되었다.(그림 4)

르네상스시대에는 그리스 로마시대의 인체미의 추구가 관능미로 표현되었는데, 이후 바로크, 로코코 시대를 지나 근대에 이르기까지 복식으로 표현되는 여성인체는 일반적으로 노출, 확대 및 축소 등으로써 재구성되기 시작했다. 스토마커, 빠니에, 코르셋, 베르튀르강 등의 여러 보조 버팀대들은 인체에서 성의 대조적인 관념을 고착시킨다. 반면에 남성복에서도 나타나는 장식효과로 인하여 오늘날의 고정적인 이분법은 근대에 와서야 정착된다.

산업혁명, 시민혁명을 거치면서 서구사회는 시민사회로 변화하였고 산업화, 도시화, 근대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남성은 주체자로서의 의식표현을 시도하였으며, 이를 위해 복식에서는 장식의 포기라는 면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근대이후의 남성은 수수하고 절제된 의복으로 인체의 해부학적 구조를 담담하게 드러내었고 무채색으로 이루어진 외형을 하게 되었으며, 여성은 이와 대조되는 복식형태를 취하게 되었다.(그림 5) 중세 말 이후 남성복의 형태는 전체적인 인체구조를 바탕으로 디자인되어 왔으며 그 형태의 형식성은 인체의 실제 모습에서 비롯되었다.²⁷⁾ 반면에 여성복은 근본적으로는 고대의 방식대로 신체가 감춰지도록 의도되었으며, 남성들이 얽매이지 않고 팽개쳐 두었던 긴 옷들 속에서 남아 있었다. 이와 동시에 성적 유혹성이라는 견해가 도입되었는데 이는 인체의 강조 노출 및 왜곡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나타나는 복식에서의 성의 분리는 20세기 초반까지 지속되었으나 양 대전을 전후로 사회가 산업적, 문화적으로 커다란 변화를 거치면서 그 경계가 모호해졌다.

27) A. Hollander, op. cit., p.69



Petit coarrier des dames, 1864.



D'après un journal de modes anglais, 1865.

(그림 5) L Kybalova, op. cit, pp.275. 277

오늘날 그 특징은 아주 다르다 할지라도 여성과 남성의 착장한 신체는 동일한 비례로 되어있고 다리 와 발의 기능도 동일하다. 그러므로 이러한 변화가 가능하도록 고정관념을 바꾸게 한 배경요인들에 대해 정리하고자 한다.

IV. 현대 여성복식에서 여성인체의외형적 변화에 영향을 준 사회 문화적 배경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여성복은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하여 관념화된 외형식미에서 탈피하기 시작하였으며, 20세기 중반이 지나면서 다양한 모습을 보여준다. 20세기 전반부에 나타나는 현대 복식의 변화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했는데, 특히 여성복식에서 보여지는 성의 변화는 여성을 주제로 하는 여성해방운동과도 적지 않은 관련이 있다. 19세기 여성의 역할과 지위에 눈을 뜬 여성해방론자들은 비활동적인 의복과 신체를 구속하는 보정기구에 대한 반발로 여성복의 개량을 간헐적으로 도입하게 하였다. 또한 스포츠나 여행의

기회가 여성에게 주어짐으로써 여성복에 있어서 활동성과 기능성이 필요시 되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많은 인명피해를 낸 1차대전에 의해 부족해진 남성인력을 대신한 여성의 사회진출과 물자부족에서 오는 복식재료의 부족은 여성복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하였다. 이에 따라 여성복은 스커트의 길이가 짧아지며 장식이 절제되는 단순화 현상을 보이며, 신체를 억압하던 기구의 소멸 및 남성복의 상징이었던 바지의 형태도입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어 2차대전을 겪으면서 여성의 사회적 직업인으로서의 진출은 급속히 증가하였으며 이는 여성복의 단순화에 적지 않은 역할을 하였다. 또한 계층, 민족, 나라 및 성별간의 유니폼화가 가능해지며 민주화의 양상을 나타내게 되었다.

1. 산업적 배경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세계는 본격적인 산업화시대로 진입하였다. 이러한 산업화, 기계화의 결과로 등장한 기성복은 현대인의 의생활을 획일

화시키는 현상을 가져왔다. 유행의 동기를 동조와 구별의 사회 심리적 요인에서 찾는다면²⁸⁾ 획일화에 대한 개성 표현의 수단으로서 다양한 스타일이 요구되었다. 특히 70년대 이후 많은 젊은 디자이너들의 역할로 유행의 다면화 현상이 보여졌으며 일본디자이너들의 서구 패션 업계의 진출은 복식에서의 입체성 및 성의 관념을 변화시키는데 적지 않은 역할을 하였다. 한편 산업의 발달은 의생활의 질을 향상시켰으며 디자이너들의 상상력을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표현방식을 가능하게 해주었다.

2. 사회 문화적 배경

· Young power

2차대전 이후의 baby-boom세대들은 60년대에 이르러 young-power를 형성하게 되었는데, 이들의 영향력은 인구비율 면에서의 중요성과 이들만의 독특한 문화형성 및 경제적 기반 때문에 가능하였다. 이들의 영향력은 대중소비와 과잉생산의 시대에서 자유주의 사고와 관련된 새로운 가치관 및 그들만의 대중문화를 만들어냈는데, 록 음악이나 진 문화 등 그들의 문화를 서구전역에 확대시켰으며 기존의 규범에 반항하였다. 이들의 쾌락주의, 개인주의, 즉흥주의 등은 여성복에서도 젊은 가치관을 반영시키게 되었다.

· 여성해방 및 가족체계의 변화

또한 젊은이들의 기존규범에 대한 반항은 남녀 관계에 있어서도 성의 해방 및 동등권과 같은 기존의 질서를 거부하는 양상을 띠게 되었다. 이와 함께 당시에 보급 개발되었던 피임약과 사회로부터 터부시되던 성관념을 재고하게 만든 문학이나 영화 등의 영향으로 인해 혁명적 여성권리의 확대 운동이 발전하게 했다. 나아가 동성애와 같은 다

양한 인간관계를 이해하고 허용하게 됨으로써 이전에는 비난받았을 행동들이 공공연하게 드러나게 되었다. 이는 후기산업사회라 일컬어지는 새로운 시대의 도래와 함께 전통적 가족관계가 파괴되어간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했다. 특히 극도의 기계문명의 발달은 현대인에게 자아상실 및 인간소외의 현상을 가져왔으며, 기존의 가족관계를 변화시키는데 무시할 수 없는 역할을 했다. 이와 같이 성의 해방은 가족관계의 변화 및 남녀 인간관계의 다양화로 이어졌다.

한편 60년대 이후 보급된 가전제품은 서구사회에 일반대중의 풍요로운 삶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이는 여성의 가사노동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동시에 여성들을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였다.

· 성문화의 역할

2차대전 이후 산업경제의 발전으로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의 사회구조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사회구조 체계 속에서 개인의 존재는 축소되고, 인간관계는 비인격적이 되며, 기능에 근거한 사회관계가 그 특징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인간가치의 하락에 따라 20세기말의 소비사회에서 성은 소비 가능한 것으로 인식되어지는데 특히 매스미디어에서 성의 상품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신문, 잡지, TV. 등의 매스미디어는 오늘날 대중소비사회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이러한 매스미디어에서의 성의 상품화는 성에 지나치게 많은 의미를 부여하게 된다. 이에 따라 유행에서 나타나는 성이란 매스미디어에서 언제나 환영받는 재료이며, 동시에 여성인체의 해석에 있어서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예술사조

유행은 한 시대의 반영인 동시에, 인간의 미적

28) Claude Cezan, La mode, phénomène humain, privat : toulouse, 1967, p.26

세계를 표현하는 예술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²⁹⁾ 60년대 이후 예술사조의 양상은 복잡해진 사회 변화와 발 맞추어 극도의 다양성을 추구하는데, 이러한 예술사조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복식도 예술사조에서 많은 영감을 얻고 변화를 겪게 된다. 특히 80년대 이후 음악, 문학, 미술, 건축 등 모든 분야에서 부각된 포스트모더니즘은 주된 특징의 하나가 중심주의를 해체하고 다원주의를 생성한다. 이러한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은 복식에서 남성과 여성이라는 이분법을 해체시키고 나아가 성에 대한 시각 자체가 해체되며, 서로 반대되는 성간의 상호연관성을 이룬다.³⁰⁾ 즉 복식에서 대립적으로 나타나던 성의 분리도 다원적 모습을 추구하게 된다.

이상과 같은 요인들이 14세기말 이후 복식에서 성의분리가 나타나면서 20세기 초반까지 보여지던 고정적 여성인체의형을 변화시키게 한 배경들이 된다.

V. 현대복식에 표현된 여성인체의 해석

1. 20세기 전반부에서 중반부까지 복식으로 표현되는 여성 인체형의 고찰

중세말 이후 20세기 이전까지의 여성인체의 외형은 복식에서 보여지는 성의 분리로 인하여 성적 차이의 극대화에서 오는 가슴, 허리, 엉덩이의 모래시계형으로 대표될 수 있다. 반면, 20세기 이후 여성 인체의 외형은 상기의 사회상황으로 인하여 커다란 변화를 나타냈다.

1900년대 초가 전세기의 영향하에 있었다면 1910년대는 가슴은 덜 강조되고 호블스커트 아래 보이는 다리가 강조되었으며 허리가 활동적인 모습을 보여 주었다. 이어 1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더욱 단

순하고 실질적인 복식의 필요성이 확립되었고, 목, 팔, 다리가 표현되었다. 즉 20년대에는 머리가 짧은 소년형에 강조되지 않은 가슴과 허리가 설정되었으며 무릎아래의 장판지가 보이는 인체 모습을 띠었다. 20년대 여성인체의 외형은 낮고 직선적으로 설정된 허리와 납작한 엉덩이의 모습을 보여 주었다. 한편 30년대로 넘어가면서 20년대 말경부터 진보성향의 여성들에 의해 착용된 바지형태와 30년대 유행한 파자마 바지로 인해 여성다리가 몸으로부터 분리되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또한 허리가 다시 표현되며 등이 노출되기도 하고, 어깨가 20세기에 들어서서 처음으로 강조된다. 40년대의 Dior의 뉴욕은 여성허리의 부활을 의미했다. 40년대 말의 여성인체는 어느 때보다도 1900년 이전의 여성 고정관념형 인체에 가까웠다. 50년대로 넘어가면 꼭 맞는 허리와 몸, 엉덩이의 강조로 전통적 모래시계형의 여성인체의 모습을 다시 드러낸다. 급격한 혁명의 60년대는 미성숙된 소녀다운 모습으로 가슴, 허리, 엉덩이의 모습을 없앤 반면, 다리를 기능과 구조면에서 두드러진 실체로 존재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여성복에서의 다리의 결정적인 표현은 복식에서 성의 분리라는 고정관념을 변화시킨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한편 60년대의 여성인체는 미니 스커트로 인하여 다리 자체의 노출까지 보여 주게 되었다.

2. 20세기 후반부 이후의 복식으로 표현되는 여성인체형의 고찰

이상과 같이 20세기 이전까지 강조되던 성의 이분적 구분은 20세기에 이르면서 그 중요도가 교대로 가감하며 나타났다. 그런데 20세기 후반부에 이르면, 여성의 인체형은 산업의 발달에 따른 생활의 다양한 표현방식, 스포츠의 확대, 여성의

29) 김민자, "60년대 pop art 사조와 패션", 의류학회지, 제10권 제1호, 1986, p.69

30) 구인숙·이영재, "현대복식에 표현된 포스트모던 페미니즘의 해체현상에 관한 연구", 충남 생활 과학 연구지, 제9권, 1호, 1996, p.3, p.11.

사회진출 및 여성해방, 가족체계의 변화, 성문화의 역할, 그리고 포스트모더니즘과 같은 예술사조의 영향에 의한 다양한 발생배경을 가지고, 특정의 인체형으로 대표될 수 없는 모습을 보여준다. 또한 사회구조의 변화속도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사회구조변화의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복식으로 표현되는 성의 구분은 그 한계선을 넘어 해체되고 재구성되는 인체형을 표현한다. 따라서 현대 복식의 경향은, 첫째 더 이상 성의 경계를 명확하게 하지 않으며 성의 구분이 모호한 인체형을 표현한다. 이러한 인체형은 남성과 여성이 동등한 별개의 성이면서 통합적인 중성형 이미지로 표현되거나, 인체자체를 소재로 하지만 복식의 조형성을 강조하므로써 인체에서 성이 사라지고 조형적 이미지로 표현되는 양상을 보인다. 둘째, 반면에 후기산업사회의 자본주의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삶에 있어서 유행의 동력이 되는 양성의 경계는 그 중요성을 잃지 않고 있다. 이는 성적 구분 및 노출을 강조하는 관능적 인체형을 표현한다. 이와 같은 인체형은 여성의 인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과장하거나 왜곡하므로써 여성인체의 물리적 부위가 부분 또는 전체적으로 강조되며, 관능적 이미지로 표현된다.

이에 따라 20세기 후반부에 나타나는 여성인체형을 크게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자 한다.

- (1) 성의 구분이 모호한 인체
 - 중성적인 인체의 표현
 - 조형적인 인체의 표현
- (2) 성의 구분이 강조되는 인체
 - 관능적인 인체의 표현

- (1) 성의 구분이 모호한 인체
 - 중성적인 인체의 표현 : 성의 혼란에 의한 중성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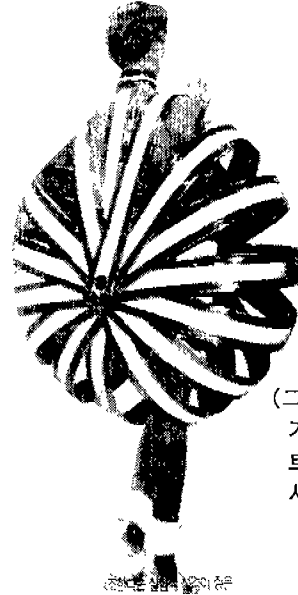
현대인은 과거 사회에서는 중요시되었던 신체의 우월한 조건이 더 이상 중요시되지 않는 사회구조 속에서 살고 있다. 따라서 남성과 여성의 신

체적 조건에 따른 역할의 분업화가 감소되었으며, 나아가 여성도 남성과 마찬가지로 사회구조 속의 모든 영역에서 원칙적으로 동등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 이와 같은 여성의 역할의 변화로 사회구조 속의 여성 노동력이 증가되었고 여성의 사회진출이 이루어졌다. 한편 급속하게 돌아가는 현대생활로 인하여, 현대인은 성에 관계없이 기능적이고 활동적인 복식이 필요하게 되었다. 또한 서구사회에서 60년대 이후 두드러지는 성의 현대화 및 전통적인 가족관계의 해체는 나아가 독신, 동거, 이성애, 동성애 등으로 성 역할의 파괴를 가져왔다. 이에 따라 여성복식은 중성화되거나 남성화된 모습을 취하면서 양성(양성)이 모두 나타나거나 성의 구분이 없어지는 안드로지니어스(androgyne) 룩이나 젠더레스(genderless) 룩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림 6) 또한 60년대 말 이후 등장하는 유니섹스(unisex) 스타일은 초기의 여성역할에 대한 반발과 남성복식의 엄격함으로부터 탈피의 욕구가 그 시초에 작용하였다고 보여졌다. 이는 오늘날 현대복식에서는 베이직의류나 여가 및 스포츠 또는 청소년층의 스타일로 정착된다. 안드로지니어스, 젠더레스, 유니섹스 등으로 표현되는 인체는 인체 사지의 구조를 인정하고 실제 인체의 비례 및 기능에 바탕을 둔 모습이다. 즉 이 인체는 여성인체에 있어서 전통적으로 강조되었던 가슴과 허리 및 엉덩이의 중요성은 무시되는 반면 다리가 기능과 미적인 면에서 드러나는 것으로, 생득된 인체의 유형을 간직한다. 극단적인 유니섹스 의복은 남성인체에서 다리의 노출을 통해 간헐적으로 표현되기도 하지만 남성과 여성의 성 구분이 중요시되는 것이 아니라 각 성은 별개로 표현되면서도 다시 통합적인 이미지로 표현되는 중성적인 체해석이다.

- 조형적인 인체의 표현 : 인체의 물리적 구조의 상징적 파괴에 의한 변형미
- 복식은 인체를 소재로 하여 옷감이라는 재료로



(그림 6) Paul Wheeler, / With, 97년 12월



(그림 7) Paco Rabanne/
가재창, 패션디자인 발상
트레닝 1, 도서출판 정은 :
서울, 1989, p.89

조형성을 추구하고, 이에 따라 인간의 상상력을 만족시키는 역할을 한다. 특히 꾸레쥬, 라반, 발렌시아가 등의 경우는 의복을 단순화시키면서 입체미의 조형적 표현을 추구하고 있다. (그림 7) 이들은 도형 등의 형태나 건축의 구조물과 같은 형상의 볼륨감을 통해 의복 속의 인체라는 내부구조를 상상하지 못하게 하는 새로운 의형식미를 표현한다. 60년대 전위적인 행동을 한 꾸레쥬는 인체를 덧싸는 기능미에 기준을 둔 의복보다는 조형성을 강조한 의복으로 인체를 조형물처럼 표현하였으며, 미야케는 의복으로부터 인체의 해방을 선언하였다.³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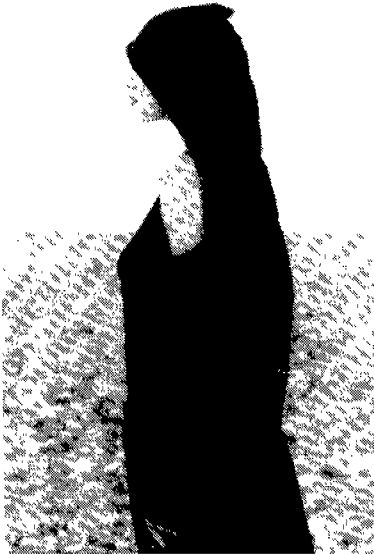
한편 70년대 이후 서구사회에 등장한 일본디자인어들은 서구의 입체화된 의복에 그들 복식의 기본개념인 평면적인 감각을 접목시켰다. 즉 이들은 자신들의 문화적 관념 속에서의 의복형태와 평면형의 패턴을 서구의 입체감각에 맞는 의복형태와 패턴에 접목시키므로써, 서양복식을 객관적 실체로 바라보고 재구성하였으며, 이를 통해 서양복식의 구조에 의문을 던진 듯이 보인다. 이에 따라 인



(그림 8) Yssey Miyake/
Dépêche Mode,
89년 2월, p.77

체와 복식간의 입체화라는 관념을 파괴시키고, 비구축적 실루엣을 창조하여 매기, 두르기, 걸치기 등의 요소를 도입하여, 서양복식의 구조적인 형식에 변화를 가져올 것을 제외한다. (그림 8) 이는 복식에서 남성성 또는 여성성이라는 개념이 제거

31) 이정후, “현대 여성복식에 나타난 안티패션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0, p.117



(그림 9) Yssey Miyake/ Dépêche Mode, 89년 1월, p.83

되고 착용자의 연출에 의해 완성되는 다양한 조형적 형태를 가져오는 것이다.

상기의 복식표현방식에 따른 인체는, 인체라는 물리적 구조성은 무시되며, 새로운 공간감으로 표현되면서도 기하학적 조형원리가 잘 드러난 3차원의 조형예술처럼 인식된다. 또 한편으로는 서구적 복식관념이 갖고있는 입체미와 구성미가 사라지므로써 관념적으로 갖고있던 인체미의 변형의 효과를 보여준다. 이에 따른 인체 표현은 의복의 각 부분별 역할에 대한 의문의 제기로서 성의 고정관념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상징화되고 연상되었던 복식부분별 인체부위의 적합성을 해체하는 양상을 띠게된다. (그림 9) 즉 여성적, 또는 남성적 상징성을 가졌던 의복에 있어서 성의 상징적 의미까지도 해체시키며 인체구조의 상징적인 해체로까지 발전된다.

(2)성의 구분이 강조되는 인체

· 관능적인 인체의 표현 : 노출로써 표현되는 관능미

예로부터 신체의 특정부위를 인위적으로 드러냄으로써 인체미의 이상형을 노출로 강조했다. 특히 서구의 여성복식은 긴치마와 과장된 기구들에 의해 하체는 은폐되고, 데콜테(décolleté)된 의복에 의해 인체의 상체부위가 노출된 형태였다. 이러한 인체의 노출과 은폐는 정숙성과 타부로 사회구조 내에서 규범화되었다. 이러한 규범을 거부하기 위하여 60년대 이후 여성의 역할 자각과 이에 발맞춘 디자이너들의 여성해방의 주장은 미니스커트의 등장 및 브레이저의 제거로 나타났다.³²⁾ 미니스커트의 등장은 물리적 실체로서의 다리를 드러나게 하였다. 또한 포스트모더니즘의 역할은 남녀의 성의 구분 및 다양성을 인정하고 여성인체의 특질을 두드러지게 했다. 한편 후기 산업사회의 성문화의 역할에 의하여 성은 자유의 상징으로 기능 한다. 육체의 재발견을 고취하는 광고, 대중문화, 그리고 유행에 의하면 여성의 인체는 끊임 없이 가꾸어지고 자유로워야 한다.³³⁾ 그런데 이와 같이 타부를 거부하고 자유로워야 하는 여성의 인체는 성적부위의 노출 및 인체 전(全)부위의 노출을 드러내며, 나아가 노출 자체를 위한 여성인체의 관능미를 강조하는 이율배반적 성향을 띤다.³⁴⁾

노출로써 표현되는 인체는 보다 컨시어스(body conscious) 스타일이나 시-쓰루 룩(see through look) 등에 의해 대표적으로 보여지는데, 크게 네 가지로 나타난다. 첫째, 데콜테와 미니, 핫팬츠 등의 신체부위가 드러나는 의복이나 부분적으로 컷팅을 하여 나타난다. (그림 10) 이러한 인체는 부위별로 성적으로 강조되는데 주지할 사실은 전통

32) 60년대 중반 Courrège가 주장한 디자인 전략에 의하면, “현대여성은 성적타부를 거부해야 하며 그 자체로서 가치를 줄 수 있는 자신의 몸을 보여 줄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Bruno du Roselle, op. cit., p.270) 단적인 예이나 60년대 이후의 변화되어 가는 사회규범의 모습을 짐작 할 수 있다.

33) 이영자, “소비사회와 여성문화”, 「한국 여성학」, 제 12권 2호, 1996, p.115

34) Bruno du Roselle, Ibid., p.287



(그림 10) Thierry Mugler/ Bazar, N.6, p.343



(그림 11) John Richmond/ 가재창, 패션디자인 발상트 레닝 3, 도서출판 정은 : 서울, 1989, p.93

적으로 서양복식에서 나타나는 부위별 성적강조와 그 모습을 달리하는 점이다. 즉 하체의 노출이 두드러지며 일정한 규칙이 없어졌다. (그림 11) 둘째, 속옷을 겉옷화(infra)하므로써 인체를 노출한다. 이러한 속옷들은 전통적으로는 여성인체를 억압하고 여성의 성적매력을 나타내는 도구였다. 그런데 오늘날 속옷의 겉옷화 현상은 기존의 성의 인식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해방감을 표현하는 동시에, 모순적으로 여성인체를 관능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J. P. Gaultier가 디자인 한 마돈나의 코르셋드레스를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그림 12) 셋째, 소재에 의한 노출을 들 수 있다. 비치는 소재 및 스트레치 성능의 소재를 씌므로써 인체부분 및 전체를 두드러지게 하는 것으로 시-쓰루 룩 등이 이에 속한다. 이로써 표현되는 인체는 인체의 물리적 전(全)구조가 직설적으로 드러난다. 넷째, 부분적 상징(性徵)의 의사(擬似)노출로 상징이 되는 부분을 인위적으로 왜곡, 강조하는 것이다. 르네상스 시대의 남성복에 표현됐던 브라게트처럼 여성인체 중 유방을 의사 노출하여 강조시킨 예 등을 들 수 있다. (그림 13) 이에 따라 해석되는 인체는 기능 및 역할에 의하여 상징화되었던



(그림 12) J. P. Gaultier/ F. Chenoun, Jean Paul Gaultier, Fashion Memoir, p.41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면서 동시에 유희적으로 표현된다. 또한 유방, 배, 엉덩이, 다리 등의 각 부위가 새로운 의미로 여성성에 기초한 관능미를 강조하게 된다.

따라서 노출로써 표현되는 인체는 성적 상징을



(그림 13) J. P. Gaultier/ Ibid., p. 56



(그림 14) Valentino/ Valografie 1989, April

과시함으로써 여성적 매력을 강조하여 인체부위의 성별 차이를 시각적으로 강화한다. 한편 60년대 이후 확고해진 다리 및 하체의 노출, 나아가 쫄 인체부위의 강조는, 성의 타부로부터 해방된 여성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한편으로는 성적매력을 드러내는 이율배반성을 보여준다. (그림 14) 주지할 사실은 전통적인 여성인체와는 다르게 해석된다는 점이다. 또한 의사노출은 인체 자체를 복식 디자인의 한 구성요소로서 받아들여도록 유도하기도 한다.

VI. 요약 및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성 인체는 서양복식에서 성의 분리가 나타나면서 표현되었으며 부위별로 성의 체계에 의해 상징성을 지닌 것이었다. 이러한 인체는 시대별로 추구되는 이상미에 따라 성의 강조점을 달리하며 나타났다. 한편 후기산업사회라 불리는 오늘날은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는 사회구조만큼이나 복식형태에 의해 표현되는 여성 인체형도 다양한 모습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첫째, 인체를 부위별로 구분하여 복식으로 강조되는 성의 상징성을 토대로 생득(生得)된 인체와 제작되는 인체에 대해 정리하고 둘째, 복식에서 성별이 고정 관념적으로 이원화된 역사적인 과정과, 현대로 넘어오면서 이러한 고정 관념에 변화를 초래하게 된 사회, 문화적 배경을 규명하였으며 셋째, 이를 기초로 하여 오늘날 복식에서 여성 인체의 다양한 모습들에 대하여 보여지고 있는 해석들을 고찰해 보고자 하였다.

오늘날 현대복식으로 표현되는 여성 인체의 해석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안드로지니어스, 유니섹스 모드 등으로 표현되는 인체로서 성의 구분보다는 인체사지 및 인체구조의 표현에 기초하며 중성적이고 생득된 자연의 인체원형을 간직한다. 또한 기하학적이거나 구성적인 조형의 원리에 충실한 복식에 의해 표현되는 인체와, 전통적인 서양복식의 입체성과 상징성에 의문을 제기한 복식 형태에 나타나는 인체이다. 이 인체는 조형성 추구에 의한 인체의 객관적 재구성을 실현하고 있다.

둘째, 보디컨시어스 스타일이나 시-쓰루 룩 등

에 의하여 성적부위를 노출시키고 강조함으로써 표현되거나, 성적상징의 의사(擬似)노출로 나타나는 인체이다. 복식으로 성적매력을 강조하고, 이에 따른 인체부위의 성적 상징성을 두드러지게 하는데, 전통적 인체의 강조와는 다르게 나타난다.

이와 같이 오늘날 복식으로 표현되는 인체는 더 이상 성적 분리에 의해서 강조되는 인체가 아니라 종합적인 상상력에 의해서 다양한 가정이 허락되고 해석되는 인체이다.

본고는 구체적인 복식으로 표현되는 여성 인체 이미지를 정리하여, 복식디자인을 하는데 있어서, 발상의 근원을 사회구조적 체계 속에서 이해하고 혼련하여, 그 가능성을 타진하는데 있다. 그런데 상기의 연구는 전반적인 흐름을 다루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례를 조항별로 세분화하고 미학 및 사회심리학적 배경 위에서 연구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 또한 조금씩 다양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는 남성 인체미에 관한 고찰도 후속연구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참고문헌

- 임범재, 인체비례론, 홍익 대 출판부 : 서울, 1980
- Louise Gordon, 문범 옮김, 인체해부와 묘사법, 미진사 : 서울, 1994
- Eduard Fuchs, 이기웅 박종만 옮김, 풍속의 역사Ⅲ, 까치사 : 서울, 1995
- Susan B. Kaiser, 김진수 감수 김순심 외 3인 옮김, 복식사회 심리학, 경춘사 : 서울, 1990
- 정홍숙, 복식문화사, 교문사 : 서울, 1989
- Anne Hollander, 채금석 옮김, 의복의 성, 경춘사 : 서울, 1996
- Alisen Lurie, 유태순 옮김, 의복의 언어, 경춘사 : 서울, 1986
- Stephen Kern, 이동성 옮김, 육체의 문화사, 의암출판사 : 서울, 1996
- Desmond Morris, 이규범 옮김, 바디워칭, 범양사 : 서울, 1997
- David Bond, 정현숙 옮김, 20세기 패션, 경춘사 : 서울, 1992
- Richard Martin 외 1인, 이선재 옮김, 인프라 의상, 경춘사 : 서울, 1996
- Bruno du Roselle, La mode, Imprimerie nationale : Paris, 1980
- Jacques Laurent, Le nu vêtu et dévêtu, Idées /gallimard : Paris, 1982
- Gilles Lipovetsky, L'empire de l'éphémère, Edition gallimard : Paris, 1987
- Cezan claude, La mode. phénomène humain, Privat : Toulouse, 1967
- 최현숙, "패션과 여성의 신체에 관한 페미니즘의 시각에서의 재조명(1)", 「대한가정학회지」, 제 34권 1호, 1996
- 구인숙 · 이영재, "현대복식에 표현된 포스트모던 페미니즘의 해체현상에 관한 연구", 「충남 생활 과학 연구지」, 제9권 1호, 1996
- 한수연, "1960년대의 의상에 나타난 미와 에로티시즘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1993
- 김민자, "예술로서의 의상디자인", 「대한가정학회지」, 제27권 2호, 1989
- 이미선 · 김민자, "인체에 대한 미의식에 따른 복식형태", 「의류학회지」, 제16권 4호, 1992
- 이정후, "현대 여성복식에 나타난 안티패션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0
- 이영자, "소비사회와 여성문화", 「한국여성학」, 제12권 2호, 1996

ABSTRACT

A study on the interpretations of woman's body in western clothing

In western clothing, woman's body was port-

rayed sexually as the distinction of sex was appeared, and the parts of body contain some kind of symbol of sex. Woman's body was diversely accentuated according to the divers ideal beauty concepts pursuits in the different periods. Today, in a Post-industrial Society whose social structure is very divers and complicated, the interpretation of woman's body reveals so various as the complex social structu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rehend the various interpretations of woman's body in the contemporary clothing.

The concrete purposes of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this study is to define the concept of natural body and built body by differentiating the parts of body and searching for the sexual symbols accentuated in the western clothing. Second this study aims to review, the historical process of prejudged distinction of sex in the western clothing, and to analyse the contemporary sociocultural which forced to change this prejudged distinction of sex. Third, on

the bases of this analyses, this study also aims to present various interpretation on divers aspects of woman's body portrayed in the contemporary clothing.

The interpretation of woman's body in the contemporary clothing were as follow. First, it is a body interpreted as a natural and neutral body which is based not so much on prejudged division of sex as on the expression of the body structure. And, it is a decomposed and recomposed body which is based on plastic principles. This body is portrayed by a layering and wrapping which interrogated such traditional symbols of western clothing as collar, sleeve or trousers, skirt, etc. Second, it is a sexually symbolized body. This body is displayed by exposure or sexual accentuation in the clothing.

To conclude, a body interpreted in the contemporary clothing is no more a body accentuated by division of sex, but a body which permits indefinite hypotheses and interpretations under synthetic imagination.